

2024. 4. 15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4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문화본부 문화정책과

담당 부서:

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실 노들섬사업팀

문화정책과장

김규리

2133-2510

문화공간운영팀장

김은경

2133-2531

서울문화재단

문화사업실장

한지연

2105-2401

서울문화재단

노들섬사업팀장

김상원

2105-2430

관련 누리집

(메뉴)

<https://nodeul.org/>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7쪽

노들섬에 가면, 노을도 있고! 공연도 있고!

<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> 4.20(토) 개막 공연 개최

- 2024 노들섬 공연기획사업 <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> 40회 공연 개최
- 4.20.(토) 17시, 악단광철,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, 포르테나 참여하는 개막행사
- 행사 운영 시, 자막·수어통역 상시 지원... 누구나 장벽 없이 문화 누릴 수 있도록
- 5월 중 창작공연 기획공모 ...8월에는 '케이팝 특별주간', 캠핑 컨셉의 '노들컬처캠핑'도

노들섬이 본격적으로 '글로벌 예술섬'으로 거듭난다. 서울시는 노들섬 잔디마당에 야외 특설무대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선보이는 <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>의 개막 행사를 4.20.(토) 오후 5시에 개최하고, 올 한 해 총 40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인다.

노들섬 잔디마당에 마련된 야외 특설 무대는 가로 36M, 세로 15M, 높이 1.2m의 대형 무대로, 노들섬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형태로 조성했다. 클래식·뮤지컬·전통 등 모든 장르를 담아낼 수 있는 규모로 주요 공연 시에는 LED 화면을 통해 뜨거운 공연

현장을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. 또한 자막, 수어통역을 상시 지원하여 더 많은 관객들이 장벽 없이 노들섬의 고품격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특히 올해는 4~10월까지 ‘다양성’에 중점을 둔 공연과 행사를 진행한다. 5월 중 기획공모를 통해 노들섬에서 신선한 예술을 선보일 창작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. 또한 오는 8월 2주에는 세계 대중음악의 중심이 된 케이팝(K-POP)과 케이컬처(K-Culture)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‘케이팝 특별주간’을 선보인다. 또한 5월~10월 평일 저녁에는 야외 특설무대의 대형 LED 화면(가로20mX세로15m)을 활용해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캠핑을 컨셉으로 영화상영과 함께 공연을 즐기는 ‘노들 컬처 캠핑’ 행사도 개최한다.

□ 한편, 올해 <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>의 개막을 알리는 축하 행사로 4.20.(토)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 특별 개막 공연을 마련했다. 현대적 감성으로 전통을 표현하여 한국음악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창작국악밴드 ‘악단광철’, 온 몸을 던져 소리를 그리는 무용단 ‘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’, 멤버 전원이 테너로 이루어진 독보적 감성의 크로스오버그룹 ‘포르테나’의 공연이 펼쳐진다.

□ 향후 <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>의 상세 공연 일정 및 출연자는 노들섬 누리집과 누리소통망(페이스북, 인스타그램)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.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문화정책과(☎02-2133-2535) 및 서울문화재단 노들섬사업팀(02-2105-2431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- 노들섬 누리집 : <https://nodeul.org/>

- 노들섬 인스타그램 : @nodeul_island

- 노들섬 페이스북 : <https://www.facebook.com/nodeul.seoul>

-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“노들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탕으로 <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>을 새롭게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”며 “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문화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을 때 언제나 ‘노들섬’을 떠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 및 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1. 개막공연 포스터

2. <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> 관련사진 5부. 끝.

[붙임 1] 개막공연 포스터



2024
문화가 흐르는
예술섬 노들
개막 특별공연

2024. 04. 20. (토) 17:00 | 노들섬 잔디마당

악단광칠

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

포르테나

서울특별시 | 서울문화재단 | 노들섬

The poster features a vibrant pink and blue color scheme. At the top, the text '2024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' is prominently displayed in white. Below this, a white banner contains '개막 특별공연'. The central illustration depicts a city skyline with a bridge and a stage where a band is performing. At the bottom, three smaller images showcase the performing groups: '악단광칠' (a vocal group), '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' (a dance troupe), and '포르테나' (a band). Logos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, Seoul Cultural Foundation, and Nodol Island are at the very bottom.

[붙임2]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 관련사진 5부





